

3. 전통직물

우리나라의 전통직물인 포란 대마포와 저마 즉 삼베와 모시를 뜻한다. 모시나 삼베의 원료인 모시풀과 삼은 우리 풍토에서 재배하기에 적당하여 비단을 입기 어려웠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왔다. 실제 예로부터 삼베는 전라남도 보성군, 화순군, 곡성군 등의 농가에서 생산되어왔고 그 질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. 순천지역을 중심으로는 쌍암면과 주암면에서 재배해왔다고 전해지나 그 생산량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. 재래식 가내수공업 즉 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방법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.

현재 피복재료의 수요가 천연섬유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모시 제작과정이 분업화되었다. 모시의 2차 원료인 태모시를 들여와 태모시(쟁모시)만을 생산하는 사람과 굵모시(모시타래 : 태모시로 실을 만든 것)만을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굵모시로 짠 모시(필모시 : 직물)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나뉜다. 1985년 이후 삼베 역시 삼째기한 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제작하는 분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.